멸종위기 남방 참다랑어를 지켜라!

여수서 CCSBT 국제회의 9개국 참가…내일까지

남방 참다랑어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 참다랑어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9개국 전문가들이 여수에서 머리를 맞댔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뉴질랜드·호주·대만·인도네시아 등 6개 회원국과 남아공·필리핀·유럽연합(EU) 등 3개 협력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콘퍼런스홀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을 위한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보존 조치의 초안 마련 ▲위원회 이행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남위 30~50도에서 서식·회유하는 어종이다. 횟감 참치 가운데서도 비싼 편에 속한다. 국내 업계에서는 지난해 899t을 잡아 대부분 일본에 수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에 가입했다.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합의에 의해 매년 남방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정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 위기를 맞은 남방참다랑어의 실효성 있는 보전책 마련과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를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상추야 잘 자라라 여수 시민들이 여천역 주변에 마련된 '도시민 가족텃밭'에 상추와 쑥갓, 아욱 등 봄작물 씨앗을 심고 있다. 여수시는 도시민 100가족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구당 20㎡ 규모의 텃밭을 분양했다. 〈여수시 제공〉

동계 훈련은 순천이 최적

지난 겨울 195팀 5만6542명 방문

지난 겨울철에 전국에서 195개팀이 순천을 찾아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전국에서 스토브리그 축구대회와 유소년 야구대회 등 16개 종목에서 195개팀 연인원 5만6542명이 동계전지 훈련을 위해 순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는 57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동계 전지훈련 종목별 참가현황을 살펴보면 축구(55%), 야구(22%), 배드민턴(6%), 정구(6%)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5%), 경기(22%), 전남(10%), 전북(9%), 인천(8%) 순으로 수도권이 55% 차지했다. 초·중·고교가 86%, 일반 실업 대학팀이 나머지 14%를 차지했다.

시는 이처럼 많은 전지훈련팀이 방문한 이유에 대해 팔마 경기장 등 공공운동시설 39개소와 학교체육시설 212개소를 무료 개방하고 온화한 기온, 풍부한 먹거리로 인해 전지훈련팀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

광양항에 풍차공장 들어선다

市, CS WIND와 MOU 풍력발전 윈드타워 세계1위

광양시가 세계적인 풍력발전 윈드타워 제작업체와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와 CS WIND(주)는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에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내 해양플랜트존 투자협약을 체결,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CS WIND(주)는 연간 32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풍력발전 윈드타워 부분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국내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지정됐다.

CS WIND(주)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내 해양플랜트존 부지에 50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 윈드타워와 윈드타워 기자재 등을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이창숙 대한민국 압화대전 대통령상

이창숙作 '야생화의 외출'

'제13회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이창숙 씨가 출품한 '야생화의 외출'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국제전 부문에서는 일본 야마우에 에츠코(金子政子) 씨의 '호반(Lake side)'이 대상(전남도지사상)을 차지했다.

국내외에서 391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분야별 대상) 4 작품, 농촌진흥청장상(최우수) 10 작품, 구례군수상(우수)·장려·입선 등 147 작품이 뽑혔다. 또 일본·대만·중국·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인도 등 7개국이 참가한 국제전에서는 최우수, 우수, 특선 등 60점의 우수작품이 채택됐다.

이창숙 씨 작품 '야생화의 외출'은 야생화의 다양한 모습을 판화형식으로 제작해 압화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례=이성구기자 lsg@kwangju.co.kr

올 가을은 정읍에서 힐링캠핑

내장산 문화광장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정읍시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힐링캠프(Healing Camp)의 추세에 맞춰 가족중심의 건전한 레저문화 보급과 친환경적인 여행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광진흥 개발기금 7억5000만원과 시비 7억5000만원 등 총 15억원을 들여 내장산 문화광장내 부지 2만5570㎡에 일반 캠핑장 55면과 오토 캠핑장 35면을 갖춘 캠핑장을 가을 단풍철에 개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전국 캠핑 동호인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구축한다

순창군이 올해부터 5년간 22억원 규모의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생산자 조직화와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마케팅활동비 1억5300만원 ▲생산자 조직화 1억원 ▲포장비·물류비 지원 3억4700만원 등 총 6억원(보조 4억8000만원·자부담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순창군 원예농산물 유통현황은 총 생산량 9100여t에 54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을 매개로 거래되는 농산물은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협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5개 지역농협 공동출자로 출범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순창군 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유광희)을 중심으로 각 읍·면 품목별 공동선별회(이하 공선회)와 연합회를 연계 조직화하고, 지역농협을 유통거점으로 활용해 도시권 대형유통 바이어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유광희 대표는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순창군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오는 2015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남원 공설시장 전경.

남원공설시장 옛 명성 되찾는다

한때 전국 3대장 꼽혔지만 대형마트 공세에 손님 외면

市,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5일장 이벤트 등 고객 유혹

남원시가 남원 공설시장을 문화와 관광명소로 본격 육성하고 있다.

남원시는 공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2년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시장을 상거래뿐만 아니라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 공설시장이 최종 선정돼 3년간 16억원 규모를 지원받게 됐다.

남원 공설시장은 조선시대 5일 장으로 시작해 남원과 인근 7개 군에 농·수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며 전국 3대 장 중 하나로 손꼽혔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시장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 사업비 6억2000만원을 투입, 시장내 부족한 문화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이벤트와 시장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 유통과 소통, 교류의 장으로서 시장의 고유 특성을 되살리는데 힘썼다.

시는 올해 2013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비즈니스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사업구성은 ICT(정보통신 기술) 융합·자생력 강화·기반설비·이벤트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 ▲시장 전면 여행자 카페·광장 조성 ▲창업인력 육성 ▲시장 먹거리 개발 ▲오일장 이벤트 등이 추진된다.

특히 오일장 이벤트의 경우 장날(4, 9일)이 든 주말 저녁, 야외 영화 상영과 먹거리, 공연 행사 등으로 월 2회 개최해 시장을 찾는 재미와 친밀감을 높일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공설시장은 장날이면 수천 명이 이용하는 호남지역 최대시장"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시장과 남원시의 다양한 자원(농업, 관광, 마을)을 연결해 시장을 거점으로 한 관광 비즈니스를 창출, 시장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국립민속국악원, 소외계층 대상 '국악산책' 운영

국립 민속국악원은 문화 소외계층인 보육원, 다문화 가정, 오지지역 저소득층 자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즐거운 국악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 민속국악원은 10일부터 10월까지 전남·북과 충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박2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국악산책은 남원 광한루원·지리산 화엄사 문화탐방, 공연관람, 난타와 민요배우기 국악 강습 등 다양한 국악교실을 경험하게 된다.

소외계층에게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즐거운 국악산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추진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시, '코레일 내일로' 무료 숙박사업 지원

정읍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도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코레일 내일로' 무료 숙박사업을 지원한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코레일 내일로'는 만 25세 이하 젊은이들이 KTX를 제외한 새마을호와 누리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의 자유석 및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스 제도이다.

시와 코레일 전북본부는 협약을 갖고 정읍지역 주소가 아닌 외부 관광객 가운데 '내일로' 티켓으로 정읍을 찾은 관광객이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1인 기준 1만원을 지원하는 무료 숙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주민 의견 수렴 '소리함' 설치·운영

순창군이 군정발전 제안이나 불편사항,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주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군청 현관 로비에 '군민행복 제안, 불편알림 소리함'을 설치· 운영한다.

'소리함'은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평소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시 느낀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형식에 관계없이 소리함에 부착돼 있는 쪽지에 작성해 넣으면 된다. 소리함에 접수된 사항은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즉시 전달돼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군수가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서 오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발레 공연

서울 발레시어터의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10일 저녁 7시 30분 고창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원작 소설을 서울 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이 참신하고 기발한 해석으로 만든 작품으로, 2000년 아르코 예술극장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2년 동안 전국에서 177회 공연됐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며, 고창 문화의 전당 회원은 20% 할인된다.

문의(063-560-8041)

/고창=음창영기자 cy0370@